

당국, 환율 구두개입 “변동성 확대 시 적극 대응조치”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 및 주가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원화약세를 더는 방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국의 사실상 구두개입이다.

최상목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美 신정부 영향, 불확실성 상존
합동점검체계 중심 시장점검 강화
2025년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장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 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커버스토리

3년후 전세계 IDC 40%, AI發 전력난 온다

〈인터넷데이터센터〉

전기먹는 하마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 빠른속도로 확장
AI서버 필요전력 연간 500TWh
서울 전체가구 소비량 10배 이상
요구전력 생산 인프라 구축 부족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도입 열풍으로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40%가 전력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고성능의 반도체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다. 또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전력난이 가속화 한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구 가트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이미지.

는 2027년 데이터센터가 AI 최적화 서버 운영을 위한 필요 전력이 연간 500TWh(테라와트시)로 2023년 195TWh 대비 2.6배에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Wh는 1000GWh로 1GW는 1시간 가동하는 동안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2022년 기준 연간 서울 410만 가구 전력 소비량은 4만 8789GWh다. 즉, 2027년 AI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 사용량은 서울 전체 가구 소비량의 10배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가 유독 타 데이터센터 대비 높은 전력 소모를 보이는 데에는 최고성능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고전력 하드웨어를 활용해서다.

여기에 더해 고전력 반도체 등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열을 식하기 위한 냉각 과정이 더해지며 전력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 AI의 고성능화가 방대한 학습에서 비롯하는 만큼 끊임없는 학습과 활용범주가 넓어지며 연중무휴로 가

동한다는 점 또한 높은 전력을 소비한다. 일반 가정용 또는 기성 공단 지역 전력 소모량을 압도하는 만큼 AI 데이터센터는 별도 전력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비상시를 대비한 발전도 구 또한 필수다.

밥 존슨(Bob Johnson)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한 신규 하이퍼스케일(초대형급)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며 전력 공급업체의 용량확장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가용성을 저해하고 전력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트너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외 용도의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도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국·수·영 작년보다 쉬워... 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관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핵심·기본적 내용 중심
다양한 난이도 문항 고르게 출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킬러)문항’은 없이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학의 경우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평가가 나오면서, EBS 수능특강 강사진과 다소 평이 엇갈렸다.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올해 수능이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8082명 늘어난 52만2670명이다. 이중 졸업생 응시자는 16만1784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최종철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출제 경향브리핑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라며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되, 변별력은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EBS 수능특강 강사진은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수준의 지문이 출제됐다”라며 “지문 정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경기도 부천시 상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사장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량이 적정하고,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돼 배경지식에 따른 독해의 유불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학 영역의 EBS 수능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교사단은 예상했다.

입시업계도 지난해보다는 쉽고, 기본적 변별력 확보는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작년 수능 국어 영역은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 국어도 결코 쉽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수학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상위권 변별력을 두고는 EBS와 입시업계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EBS 교사단은 “‘공정수능’ 출제 기조 이후 처음 출제된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라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일부 문항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돼 변별력 또한 확보됐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수학 영역의 최상위권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기하는 지난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반면, 선택과목 중 확률과통계는 지난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 개념을 다루는 문항은 배제하고, 지문과 선택지의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게 EBS 교사단 평가다.

/이현진 기자 ihj@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국정농단 심각,尹 퇴진해야”
/사진 뉴시스
▲ 홍준표 “한동훈, 지지율 고작 10%대 창피한 줄 알아라”

▲ 정부, 북한군 전투 투입에 “원칙에 따라 단계적 대응”
▲ ‘한-쿠바 수교 일조’ 한택진 등 4명에 해오 외교관상 수여



▲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뉴시스
▲ 조국 “한동훈 요구 반영해 제3자 특검 추천... 수용해라”